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부산체육
2025. 11 Vol. 84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84**
2025. 11

체전 그 이후

사진으로 보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대장정의 기록
부산, 광역시 중 종합 1위 달성

영광의 얼굴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의 주역

종목 소개
바둑

Baadduk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행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

- 체육시설** 부산시체육회 지정 시설 10% 할인
- 스포츠**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10% 할인
- 의료** 병의원/약국 업종 10% 할인
- 생활**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5% 할인
- 학원** 학원 업종 5% 할인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2441 (심의일자 2025. 11. 03) 유통기간: 2025. 11. 03 - 2026. 10. 31, 10. 24
 어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C14-16286호(2025. 11. 03 - 2026. 10. 24)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11 Vol. 84

발행일 2025년 11월 17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4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 그 이후**
 - 사진으로 보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대장정의 기록
 - 부산, 광역시 중 종합 1위 달성
- 14 **부산체육인**
 -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
 -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 22 **금빛 훈련일지**
 - 부산광역시체육회 신민기 선수
 - 부산광역시체육회 황선홍 선수
- 26 **푸른 바다, 큰 꿈**
 - 부산체육 꿈나무 4인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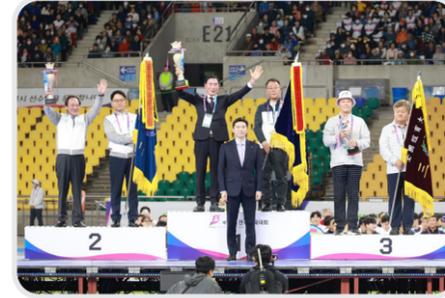
- 30 **전국체전 trivia**
 - 숫자로 본 부산선수단의 기념비적 순간들
 - 부산체육, 전국체전의 영광을 말하다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영광의 얼굴들**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의 주역
- 40 **종목 소개**
 - 바둑
- 44 **스포츠&컬처**
 - 다니엘스의 러닝 포물러

나와 너, 우리 함께

- 46 **BSC 뉴스**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 2025 부산체육진흥 세미나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4 체전 그 이후



14 부산체육인



40 종목 소개



44 스포츠&컬처



46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사진으로 보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최된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부산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완벽한 준비로 찬사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개막식 부터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 감동의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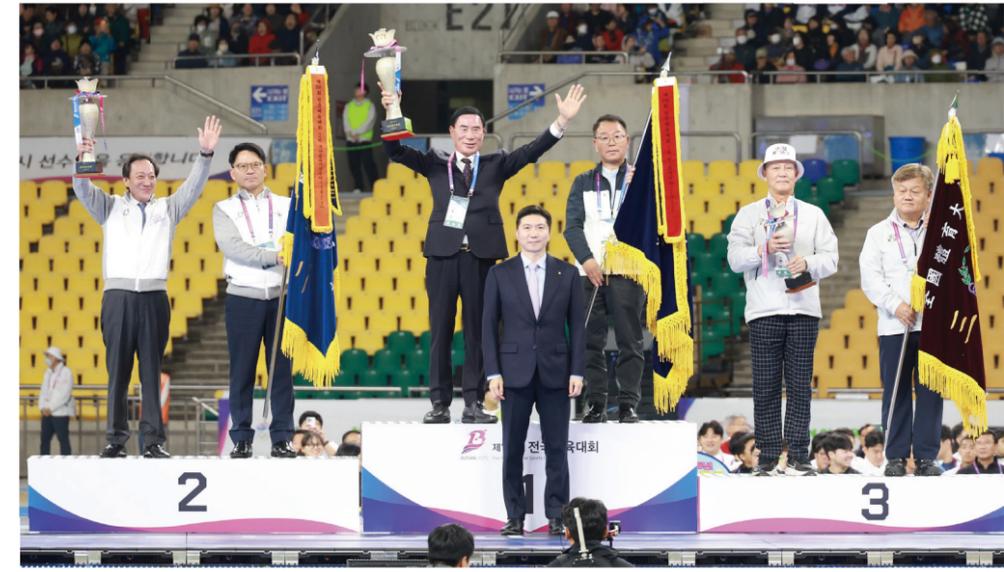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대장정의 기록

2025년 10월 17일, 마침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2000년 제 8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무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진행되었으며 10월 2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화려했던 7일간의 여정 뒤에 어떤 노력이 있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해 보았다.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2024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국회의원, 시·구·군의원,구청장·군수, 대학 총장, 군·경·소방, 언론·방송, 경제·금융·종교·문화예술, 체육계, 국민운동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8명으로 구성된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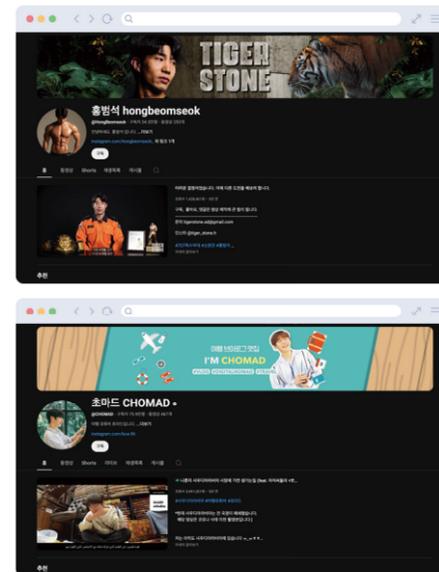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 관련 최고(最高)기구로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시·시교육청·시체육회·경찰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16개 구·군으로 구성된 구·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하였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육대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징물 개발, 홍보영상 제작,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을 진행하였다. 박형준 시장은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부산 시민과 함

께 준비하겠다. 참가 선수와 관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종목담당관을 임명하였다. 종목담당관은 종목별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경기 운영, 경기장 관리, 대회 운영인력관리, 중앙송무단체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맡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국 체육 관계자 회의, 찾아가는 구·군 홍보 설명회, 시설 점검 등을 실시로 진행하여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5년 4월에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가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체육대회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총 17개국에서 40명으로 구성되었던 총연합회는 대회 관련 주요시설을 방문하는 등 해외동포선수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처럼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었다.



홍보대사 위촉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

부산시는 부산 동래구 출신 배우 김동준과 부산시청 소속으로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펜싱선수 송세라를 전국체육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두 사람은 전국체육대회 주요 행사 참석, 홍보영상 촬영, 방송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8년 세계소방경기대회 ‘최강소방관’ 챔피언 및 ‘피지컬 100’ 시즌 2에서 준우승에 올라 세계 1등 소방관으로 불리게 된 스포츠 유튜버 홍범석과 2025년 채널 에스(S)의 오리지널 여행 예능 ‘우리 지금 만나’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며 여행의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유튜버 초마드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유튜버 홍범석과 초마드가 제작한 영상은 사람들에게 전국체육대회와 더불어 부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를 모집하였다. 부산시 손태욱 체육국장은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자발적인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6천여 명의 서포터즈가 함께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전국체육대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여 경기 일정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 셔틀버스 운행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람들이 대회를 즐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부산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낸 개회식·폐회식

박칼린 연출이 총감독을 맡았던 이번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 무대는 부산의 역동성과 생명력, 부산의 근현대사와 미래 비전이 담긴 ‘역대급 그라운드 쇼’로 구현되었다.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항만 컨테이너 하역장을 옮겨온 듯한 초대형 무대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그라운드 위로 펼쳐졌다. 컨테이너에서 뮤지컬 배우 최재림을 필두로 출연진들이 등장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는데,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는 유니버스 형식의 무대는 부산의 역사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예술적으로 그려내 큰 박수를 받았다. 개회식 무대 다음으로는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와 불꽃 쇼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선수단 입장, 개회사, 데이브레이크 등의 축하 무대가 그 열기를 이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여 선수단을 격려하는 한편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폐회식 무대의 주제는 ‘뱅기 뜬다, 날자!’였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해변을 즐기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치열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부산 영도할매와 제주 선문대할매 설화를 바탕으로 꾸민 무대를 통해 부산과 차기 개최지인 제주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

었다. 폐회식에서는 성적 발표 및 종합 시상, 환송사, 폐회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가수 김희재 등의 축하 무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국체육대회가 남긴 눈부신 성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 개최라는 상징성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특히 자원봉사자, 성황봉송주자, 서포터즈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시민 참여는 대회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회가 무사히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회를 앞두고 부산시가 체육국을 신설한 것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는데, 체육 정책과 대회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함으로써 부산광역시체육회 등 각 종목 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사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선수단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부산선수단은 전 종목에 출전하여 활약하였는데,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에서도 기적적으로 메달을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부산은 총득점 5만 6,870점(금 66개, 은 57개, 동메달 117개 획득)으로 2위, 1위는 총득점 6만 6,595점의 경기도가 차지하였다. 서울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상위권에 오른 것은 전국체육대회를 통틀어 이례적인 일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선수들도 자긍심을 갖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부산, 광역시 중 종합 1위 달성

부산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무려 52년 만에 종합 2위에 올랐다. 이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점수는 17,262점 상승, 순위는 4단계나 상승한 결과다. 2,000명(선수 1,302명, 임원 698명)으로 구성된 부산선수단은 50개 전 종목에 참가하여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결과 경기도가 종합 1위, 서울이 종합 3위를 하였으며, 종합 2위인 부산은 광역시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전국체육대회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성적

종합 2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6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제105회 성적:
6위(39,608점),
187개 메달(금 54, 은 51, 동 82)

전체 240개 메달 획득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합계
1	경기	66,595	138	122	151	411
2	부산	56,870	66	57	117	240
3	서울	55,520	109	112	107	328
4	경북	50,339	93	106	120	319
5	충남	45,334	74	75	103	252
6	강원	40,042	85	73	95	253
7	경남	39,665	40	75	94	209
8	인천	37,669	51	53	89	193
9	대전	35,694	68	45	89	202
10	충북	35,058	50	64	82	196
11	광주	32,640	53	48	62	163
12	대구	32,417	50	57	54	161
13	전북	31,629	38	45	79	162
14	전남	28,788	41	43	75	159
15	울산	19,452	47	27	58	132
16	제주	9,775	23	21	34	78
17	세종	6,523	2	5	14	21
합계		620,705	1,028	1,028	1,423	3,479

※ 제105회 7개 종목입상: 우승 4, 준우승 1, 3위 2

우승

복싱
핸드볼
세팍타크로

에어로빅합합
탁구
바둑

준우승

태권도
레슬링
농구
사격

검도
요트
산악

3위

궁도
조정
배구

아구소프트볼
댄스스포츠

※ 24종목, 500점 이상 15종목

1,000점 이상

탁구+1,581
핸드볼+1,396
배구+1,381

500점 이상

세팍타크로+919
농구+905
하키+810
펜싱+775
복싱+739
육상+705
사격+695
소프트테니스+658
테니스+645
궁도+625
태권도+592
사이클+546

300점 이상

역도+491
레슬링+475
양궁+461
씨름+444
합기도+444
볼링+419
롤러+407
검도+358
카누+304

특이사항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2023년 제104회 대회에 이어
3년 연속 6대 광역시 중
종합 **1위**

<p>복싱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p>	<p>탁구 1986년 제67회 대회 이후 39년 만에 종합 1위 달성</p>	<p>세팍타크로 8년 연속 종목 종합 1위</p>
<p>핸드볼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p>	<p>육상 2000년 이후 최다 득점 및 최다 금메달 획득</p>	<p>에어로빅합합 4년 연속 종목 종합 1위</p>

50년 바둑 인생, 부산 바둑의 새 도약을 꿈꾸다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은 50년 넘는 세월 바둑을 사랑해온 열정가다.

2025년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침체된 바둑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바둑 사랑 50년, 협회장으로서의 새 도전

김대욱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끈 것은 가지런히 놓인 바둑판과 바둑돌이었다. 바둑과 인연이 긴 만큼 그 애정도 깊음을 느낄 수 있는 집무실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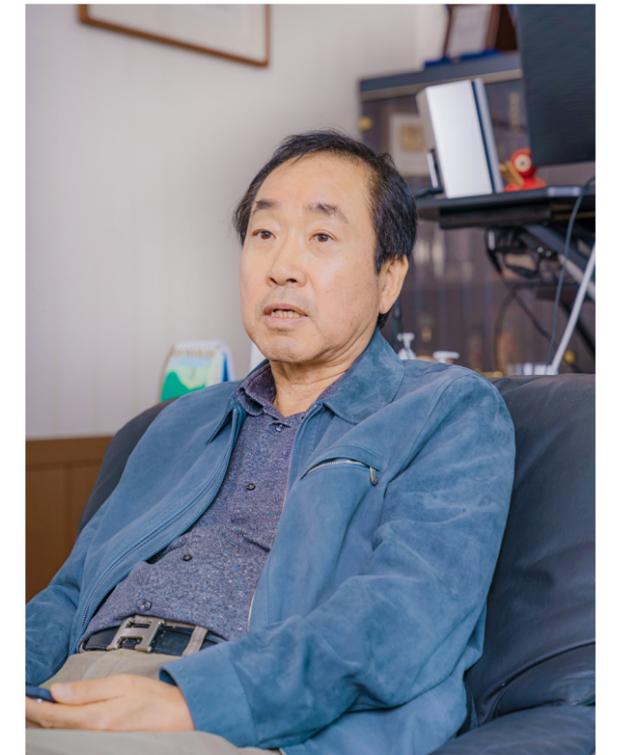
“처음 바둑을 배운 게 1973년,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했수로 벌써 50년을 훌쩍 넘겼네요. 돌을 잡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둑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시절에는 한국 기원 프로들과 귀한 인연을 맺기도 했고요. 돌이켜보니 그야말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검고 흰 돌과 함께 해왔네요.”

반세기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바둑을 사랑해온 김대욱 회장. 올해 부산광역시바둑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이전부터 바둑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기여라고 하기엔 민망하고요. (웃음) 다행히 사업이 순항 궤도에 오르고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둑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여느 스포츠가 그렇듯 바둑 역시 스타플레이어를 제외하면 다들 활동이 어려워요. 특히 관록 있는 시니어 프로들이 활약할 기회가 적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대주배(大舟杯)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니어 프로들만 참여하다가 몇 년 뒤에 여류 기사들도 합류했죠.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둑, 그 심오한 매력

남다른 바둑사랑을 뽐내는 김대욱 회장이 말하는 바둑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둑은 명실상부 두뇌전의 대명사죠. 취미활동으로 이만한 지적 스포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체 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부상 위험이 없고, 기량 저하가 급격한 것도 아니니까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논리적인 추리력과 전반적인 뇌 기능 향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 깊이가 심오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재미는 날로 커집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매력 덕분에 바둑은 수천 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AI의 대중화로 인해 수싸움을 기본으로 하는 종목들은 창의성이 사라지고 한 가지 정답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대욱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AI가 등장하고부터 바둑의 모든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 정석으로 여겨지던 수가 재평가되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약수가 순식간에 판세를 뒤집는 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시대가 온 거죠. AI의 경이로운 계산능력뿐만 아니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자유로움을 볼 때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획기적이고 기상천외한 수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50년을 공부했는데도 재미있는 공부거리가 더 늘어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



부산 바둑 발전 청사진을 그린다

수십 년간 바둑계에 몸담아온 김 회장은 2025년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산 바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 과제를 안게 됐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산 바둑계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바둑이 종합 1위를 기록했는데,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부산의 대표격인 신진서 기사의 이름을 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연구생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단기 목표입니다. 나아가 바둑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 후원을 통해 동호인들과 여성가족연맹 대회도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회장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뜻을 모은 여러 조력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저뿐만 아니라 협회 임직원들을 비롯하여 바둑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부산의 바둑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봉장학회는 바둑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KBF 바둑리구에 ‘부산 이봉장학회’ 팀도 운영하며 젊은 기사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장학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회장이 된 지금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여러 조력 단체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부산 바둑의 화려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바둑, 교감과 배움의 매력

끝으로 김 회장은 바둑계의 선후배, 그리고 앞으로 바둑의 매력에 빠지게 될 예비 동호인들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최근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바둑팀이 종합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하나되어 선수들을 응원한 덕분에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이란 종목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상 위험이 적고, 나이가 든다고 기량 저하가 심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수담을 나누면서 상대방과 교감하고 서로의 스승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진입장벽을 체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온라인에 좋은 교육자료가 많으니 옛날처럼 입문자용 책을 달달 외우거나 하진 않아도 될 겁니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실제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뜻 맞는 친구들과 바둑의 세계로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떨지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8년 연속 종목 종합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부산 세팍타크로팀.

2006년 창단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 뒤에는

묵묵히 그들을 지원해 주는 부산환경공단이 있었다.

부산시와 공단의 연결고리 역할

부산환경공단은 부산 시민의 일상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여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가정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이처럼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같은 도시의 필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환경전문기관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한 환경시설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올해 초 이근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근희 이사장은 부산환경공단 취임 전 부산시에서 환경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하며 부산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사업 역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시에서는 주로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공단은 정책과 계획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통한 피드백이 다시 정책과 계획에 반영되고요.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는 공단의 서포팅과 피드백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와 공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공단 역량의 객관적인 지표 정리

이근희 이사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단의 ‘경영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부산환경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2년 연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뛰어난 역량을 자랑한다. 이근희 이사장 역시 공단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을 바로 알아보았다. 다만 공단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웠다. 최고 등급, 표창 수여라는 타이틀만으로 공단이 무엇을 잘했는지 시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운영에 있어 시설 관리, 원가 절감 등 어떤 부분이 잘되었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공단과의 비교보다 중요해요.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 우리 지역, 우리 공단에만 적용 가능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단과의 경쟁이 아닌 우리와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담겨 있다. 전략은 ‘안전제일 시설관리, 시민우선 공공기여, 노사화합 경영혁신’이라는 3대 전략 아래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지표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 환경기초시설 맞춤형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다면평가제도 개선, 지식 노하우 공유시스템 지식은행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11월에 열린 성과보고 회의에서는 안전 및 하수처리 분야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환경공단의 자랑, 세팍타크로팀

부산환경공단은 오랜 기간 세팍타크로팀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세팍타크로팀은 남녀 팀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부산이 종합 2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근희 이사장은 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있었던 날 경기장을 찾아 공단 서포터즈와 같이 열정적으로 응원하였고 승리의 순간을 함께했다.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금메달 석권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세팍타크로팀은 2006년 창단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근희 이사장은 세팍타크로팀의 우승 비결로 선수들의 호흡이 좋았던 점, 10년 이상 선수들과 함께한 광석호 감독과 세팍타크로의 종주국인 태국에서 영입한 핀 폰 코치의 지도력, 전지훈련 등을 꼽았다.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났지만, 그보다 선수와 지도자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팀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공단은 이들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전용 훈련장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로 구성된 ‘베팍스’라는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경기 때마다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이처럼 세팍타크로의 활약은 공단을 단합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세팍타크로가 국민 스포츠가 되는 날까지

평소 건강을 위해 등산, 요가,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의 운동을 즐겨하는 이근희 이사장은 이번에 세팍타크로가 얼마나 매력 있는 스포츠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감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공단 내 족구대회에서 세팍타크로팀과 공단 직원 간 친선 경기가 있었다. 이날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보여준 묘기에 가까운 동작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팍타크로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이 어우러진 멋진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족구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반면 세팍타크로는 아직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족구에서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게 세팍타크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족구를 즐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족구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며 그 입지를 더욱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희 이사장은 세팍타크로가 족구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찾아가는 세팍타크로 체육교실’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수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팍타크로를 알려주는 것으로, 세팍타크로 선수단 훈련장으로 쓰기도 했던 정관 소각장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고. 그렇게 되면 기장에서 시작해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족구처럼 세팍타크로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근희 이사장은 그보다 앞서 세팍타크로팀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할 일상과 여가를 위해 사업장 내 공원과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15분 도시 부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과 공단 세팍타크로팀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꿈을 향한 정밀 조준

부산광역시체육회 신민기 선수

영도 종합사격장 안, 날카로운 총성이 여러 번 들려왔다. 청소년부터 실업팀 선수까지 한데 모여 훈련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신민기 선수였다. 그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 선수이기도 하다. 앞길이 창창한 미래의 스타 플레이어 신민기 선수가 걷고 있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소속된 신민기입니다. 10m 소총이 주력이며, 사격을 한 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처음 총을 쥐었던 날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사격을 시작한 계기는 주변의 권유였습니다. 사격 선수로 활동하던 친구가 사격을 권유한 날, 무슨 우연인지 어머니 또한 사격 선수 활동을 권유했습니다. 그 날은 제게 사격이 운명처럼 다가온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격 선수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이번 부산 전국체육대회에서 251.3점이라는 대회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록과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것이 컸습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상 유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원래 쓰던 총과 다른 총을 쓰면 점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여 대회 날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기쁜 동시에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열망이 강합니다. 전국체육대회 신기록을 넘어 국가대표 선발, 나아가 세계 신기록까지 넘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겠습니다.

Q 사격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사격은 외로운 스포츠입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사격은 경기 중에 다른 선수의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선수의 경쟁 상대는 과거의 나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성장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격은 자기 자신을 갈고닦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Q 지금껏 참가했던 많은 경기 중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A 고등학생 때 참가했던 한일 교류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대회에 진출하는 순간까지 많은 역경이 뒤따랐습니다. 대회 준비 중에 하지정맥류 때문에 수술받고, 대회 출전 3일 전에 맹장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다고, 대회 중에도 수술받은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경기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픔을 참고 1등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격 선수로서 목표하는 바와 포부를 말해주세요.

A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대표를 넘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 더 많은 선수와 기량을 겨루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내어 사격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노장이 될 때까지 사격 선수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대개 20대 후반은 운동선수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28살로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기에, ‘노장’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격 선수로 활약하는 것이 꿈입니다.



물살 위의 금빛 영광, 카누 1000m·500m 값진 금메달의 기록

부산광역시체육회 황선홍 선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황선홍 선수. 그는 카누 남자 일반부 C1-1000m와 C1-500m 종목에서 각각 4분 34초 250, 1분 51초 782의 기록으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부산선수단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부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 종목 석권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둔 황선홍 선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부산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두 종목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부산의 첫 금메달을 따서 정말 뜻깊습니다. 카누를 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건 저도 처음이라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첫 금메달, 제 카누 인생에서도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집중했던 부분이 있나요?

A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라 여러 대회 출전으로 시합 준비의 질적인 측면이나 회복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정이 바듯하다 보니 훈련뿐 아니라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회복 훈련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Q 1000m·500m 두 종목 모두 좋은 결과를 거두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셨나요?

A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대 선수들의 흐름을 보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초반과 중반에는 힘을 비축하고, 후반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Q 카누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선수로서 전환점이 된 순간은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A 부모님의 권유로 카누를 처음 접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쉬는 날에도 강에 나가 혼자 탈 정도로 저와 정말 잘 맞았죠. 전환점은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2020년 입대 당

시부터 복귀 후 금메달을 목표로 독하게 운동했고, 전역 직후 금메달을 따면서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마음 가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Q 좋은 성과 뒤에는 함께한 팀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말이 있을까요?

A 저보다 저를 더 믿어주는 감독님과 팀 동료들이 있었기에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하며 서로를 격려해 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팀의 일원으로 있다는 게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Q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그리고 후배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가장 가까운 목표는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후배 선수들에게는 부상 관리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또 훈련에서는 항상 집중력을 유지하고, '누구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체육 꿈나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미래를 그리다

성화봉송 주자 부산체육 꿈나무 4인

0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02
자신의 종목과
종목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03
어떤 계기로
체육인의 길을
걸게 되었나요.

04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화 봉송을 맡았던
소감이 궁금합니다.

05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06
체육 꿈나무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면 아마 더욱 의미가 남달랐을 이번 대회에 부산 체육 꿈나무들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성화 봉송으로 자신들의 내일을 엿본 4인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분포초등학교 6학년 공건입니다. 수영은 2학년 말부터 시작했고, 현재는 분포수영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종목은 50미터 단거리 자유형, 배영 그리고 접영입니다. 단거리 종목은 출전 선수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운동을 즐기며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께서 “운동을 참 잘한다”,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고, 작은 경기라도 승부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커졌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성화 봉송을 직접 맡게 되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통령님을 가까이에서 뵈고, 많은 관중 앞에서 성화를 들고 달릴 때는 웃음이 나올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나도 언젠가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보고 싶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체력을 더 강하게 기르고, 단거리 전 종목에서 세계 1등을 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0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02
자신의 종목과
종목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03
어떤 계기로
체육인의 길을
걸게 되었나요.

04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화 봉송을 맡았던
소감이 궁금합니다.

05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06
체육 꿈나무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산체육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지원입니다. 전공은 기계체조이며, 매일 꾸준히 훈련하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기계체조는 마루, 2단평행봉, 평균대, 도마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마루와 도마를 주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음악과 함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 도마는 짧은 순간에 모든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긴장감과 짜릿함이 있어 좋아합니다. 달리는 걸 좋아하는 제 성격과도 잘 맞는 종목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거점스포츠클럽의 체조 취미반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어요. 체조를 하면서 점점 더 이 운동이 좋아졌고,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지금의 체육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고, 특히 대통령님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



사실 저는 훈련하느라 전국체육대회를 자세히 관람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전경기로 열린 기계체조 대회는 현장에서 선배님들을 응원하며 멋진 연기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저도 그 무대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니 대회를 보는 마음가짐이 새로웠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체육 꿈나무’라는 말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올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결과보다 과정에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02

자신의 종목과
종목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03

어떤 계기로
체육인의 길을
걷게 되었나요.

04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화 봉송을
맡았던 소감이
궁금합니다.

05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06

체육 꿈나무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산체육중학교 3학년 근대3종 선수 정수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대 5종 종목을 알게 되어 운동을 시작했고, 부산체고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대5종은 수영, 레이저런(육상+사격), 펜싱, 장애물경기로 이뤄진 종목입니다. 1912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고 가장 올림피아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타 종목은 보통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만 근대라는 종목은 여러 가지를 모두 잘해야 해서 훈련량도 많고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수영을 좀 못했더라도 레이저런이나 펜싱 등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수영장, 육상장, 펜싱장 등 훈련 환경이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

저는 3남 1녀 중 셋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축구도 참 좋아했지만 운동선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체고 2학년 근대4종 선수인 형(정우영)이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체중에서 근대3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형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화 봉송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하는 일상이다 보니 솔직히 성화 봉송을 위한 리허설에 참여한다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았어요. 하지만 성화 봉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행사라는 것과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꿈나무 선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부산을 찾는 모든 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노력했고 지금은 무척 부듯합니다. 축하 인사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라면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야말로 최고 목표일 텐데요.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시민으로 대회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대통령 내외분부터 자원봉사자분들까지 대회를 준비하는 데 이렇게 많은 분이 애쓰시는지 몰랐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이 우승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가장 높은 곳에서 웃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0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02

자신의 종목과
종목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03

어떤 계기로
체육인의 길을
걷게 되었나요.

04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화 봉송을 맡았던
소감이 궁금합니다.

05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06

체육 꿈나무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SuperB Inline club 소속으로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 지 5년이 된 최예운입니다.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매력입니다. 특히 뒤에서부터 앞 선수들을 제치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인라인을 타면 긴장이 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차츰 더 멋진 경기를 해내는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막상 리허설을 할 때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꿈나무 선수 대표로 나온 만큼 성화 봉송을 즐겼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니다.

솔직히 다른 종목의 경기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모든 선수분이 이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부문에서 3관왕을 한 이에림 선수님, 강병호 선수님을 보며 저도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 3관왕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있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메달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몸 관리도 잘해서 나중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도 해보고 싶습니다. 시니어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감독 혹은 코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숫자로 본 부산선수단의 기념비적 순간들

52년 만의 종합 2위부터 사상 첫 우승까지

전국체육대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개최지 부산선수단이 만들어낸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부산체육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정표였다. 숫자로 다시 보는 부산의 감동 서사.



부산, 52년 만에 종합 2위 탈환

1973년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자리였다. 제106회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총점 56,870점으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위에서 네 계단을 뛰어오른 상승 곡선. 개최지의 자존심을 걸고 이룬 결과였다. 52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부산체육의 이름이 다시 정상권에 올려 퍼졌다.



광역시 중 압도적 1위, 3년 연속의 자존심

부산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3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인천을 제친 결과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의 위상, 체육 도시 부산의 정체성이 숫자로 증명됐다.



the 1st

첫 번째

복싱, 사상 첫 종합우승의 금빛 주먹

부산 복싱이 마침내 해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우승. 오랜 시간 쌓아온 땀과 열정이 금빛으로 결실을 맺었다. 링 위의 부산은 강했다. 그 한 방이, 곧 역사가 됐다.

39년

탁구, 39년 만의 부활

1986년 이후 39년 만에 다시 정상. 부산 탁구가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왔다. 세대 교체와 전략의 변화 속에서 다시 빛난 승리였다. 전통의 강호가 제자리를 되찾았다.



4년

에어로빅힙합, 4년째 이어진 리듬의 제왕

부산 에어로빅힙합은 4년 연속 종합우승으로 리듬의 도시 부산을 완성했다. 특히 부산동여고 김지윤 선수는 단체전, 개인전, 힙합 개인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부산 선수 최초 3관왕에 올랐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예술성이 결합된, ‘움직임의 예술’이었다.



다시, 부산

숫자는 성적표이자 시간의 기록이다. 52년의 기다림, 39년의 복귀, 그리고 첫 우승의 순간까지. 그 모든 길 위에는 부산체육의 땀과 숨, 그리고 꾸준한 발걸음이 있었다. 부산은 화려한 기록보다 성실한 도전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부산체육, 전국체전의 영광을 말하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은 종합 2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저력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종목의 협회장들에게 이번 대회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부산체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부산광역시에어로빅·힙합협회 이형주 회장

“부산의 에어로빅·힙합, 더 넓은 무대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에어로빅·힙합 종목이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최지 부산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으며, 부산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성과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학교와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정병권 회장님의 꾸준한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헌신적인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소년 선수 발굴과 학교·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부산의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대표 스포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복싱협회 허준앙 회장

“부산 복싱의 전통, 다시 세계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복싱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땀과 인내, 지도자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과이며, 부산 복싱의 전통과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원과 관계자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고,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준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유소년 발굴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부산 복싱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부산 복싱이 도전과 열정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빛나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박종우 회장

“부산 탁구, 다시 부활의 스매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탁구 종목이 40여 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번 과거는 유남규·현정화 감독 이후 부산 탁구의 명예를 되살린 역사적 성과로,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산대학교 선수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투혼으로 금메달을 일궈내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선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소년 발굴과 팀 운영을 체계화해 여자고등부 등 공백을 메워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서 부산 탁구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김형민 회장

“8연패의 자부심, 더 높은 정상으로!”

세팍타크로가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부산체육의 결집된 힘과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전략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부산체육 중·고의 기반 확충, 태국과의 교류, 환경공단 서포터즈의 응원이 모두 하나로 모여 가능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내년 제주 전국체전에서도 다시 한번 정상에 서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유소년을 위한 ‘토요 세팍타크로 학교’ 등 저변 확대에도 힘쓰며, 부산이 세팍타크로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핸드볼협회 이정웅 회장

“부산 핸드볼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

20여 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것은 부산 체육사에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체육회와 협회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적 대회 운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고부 공백을 메운 영도여고의 선전, 상무팀의 준우승, 낙동고의 8강 진출은 모두 부산 핸드볼의 열정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유소년 육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여고부 창단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부산 핸드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의 주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24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오른 부산.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견인한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소개한다.



3관왕

				
에어로빅합합	김지윤 부산동여고	김현지 체육회	양궁	이은재 한체대

2관왕

			
에어로빅합합	차지원 체육회	윤창일 체육회	임재한 체육회

2관왕

		
배드민턴	김채정 부산외대	정유빈 부산외대

		
역도	유원주 체육회	정안성 동아대

			
볼링	박수민 남구청	사격	신민기 체육회

			
카누	황선홍 체육회	탁구	이동혁 영산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메달 획득자 명단

금메달 66개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검도	여일	김서연 등 6명	단체전	체육회
2	댄스 스포츠	일반	정은지, 황유성	라틴3종목	부산연맹
3		일반	김가은, 이준혁	스탠다드 3종목	
4	레슬링	남고	이지훈	F61kg	부산체고3
5		남대	채승훈	F97kg	동아대4
6		남대	노병환	자유형70kg	동아대3
7	롤러	남일	김민호	스프린트 500m+D	서구청
8		남일	박현웅	스프린트 1,000m	
9	바둑	여일	김희수 등 3명	단체전	바둑협회
10	배드민턴	여대	김채정, 정유빈	개인복식	부산외대
11		여일	김혜정, 이연우	개인복식	삼성생명
12		일반	이유림, 이종민	혼합복식	
13		여대	김채정 등 7명	단체전	부산외대
14		여일	안세영 등 7명	단체전	삼성생명
15	복싱	남고	박태산	웰터	부산체고3
16		남고	박담현	라이트헤비	
17		남일	김형규	슈퍼헤비	체육회
18	볼링	여일	박수민 등 3명	3인조경기	남구청
19		여일	박수민	마스터즈	
20	사격	남일	신민기	공기소총-개인	체육회
21		남일	신민기 등 4명	공기소총-단체	부산선발
22		일반	하광철	런닝타켓 10m	부산시청
23		일반	서지수 등 4명	트랩-단체	부산선발
24	세팍 타크로	남일	김동진 등 5명	단체전	부산 환경공단
25		여일	박희주 등 5명	단체전	
26	소프트 테니스	남일	김민홍, 정영만	개인복식	체육회
27	수영 (경영)	남고	박우민	접영200m	부산체고2
28	씨름	남대	김민규	용사급95kg	동아대3
29	야구 소프트볼	남일	곽병진 등 18명	야구	부산과기대
30	양궁	남대	이은재	90M	한체대3
31		남대	이은재	50M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32	양궁	남일	이승일 등 4명	단체전	부산선발
33		대학	윤지희, 이은재	혼성단체전	
34	에어로빅 합합	여고	김지윤	에어로빅-개인	부산동여고3
35		고등	김지윤 등 5명	에어로빅-단체(스텝)	부산선발
36		일반	김현지 등 3명	에어로빅-3인조	체육회
37		일반	김현지 등 5명	에어로빅-단체(스텝)	부산선발
38		여고	김지윤	합합-여자개인	부산동여고3
39		일반	김현지 등 3명	합합-단체	체육회
40	역도	여일	유원주	인상55kg	체육회
41		여일	유원주	합계55kg	
42		남일	양지웅	용상73kg	
43		남일	조대희	인상89kg	
44	요트	일반	하지민	국제레이저급	해운대구청
45	육상 (트랙)	남대	정안성	400m허들	동아대4
46		남대	정안성 등 4명	4x400mR	부산선발
47	육상 (필드)	남대	이현우	멀리뛰기	부산대4
48		남일	진민섭	장대높이뛰기	연제구청
49		남고	김준기	높이뛰기	부산체고3
50		여대	신서연	멀리뛰기	동아대4
51	조정	남고	김상현, 최우진	무타페어	부산체고3
52		남고	김준서, 이현준	더블스컬	부산체고2
53	카누	남일	황선홍	C1-1000M	체육회
54		남일	황선홍	C1-500M	
55	탁구	남대	이동혁	개인전	영산대4
56		여일	최효주	개인전	한국마사회
57		남대	이동혁 등 5명	단체전	영산대
58		남일	임중훈 등 5명	단체전	부산선발
59	태권도	남일	이상준	-87kg	수영구청
60		남대	김효혁	-67kg	동아대4
61		여일	김민서	-49kg	동래구청
62		남대	류진	-74kg	동아대4
63		여대	권미서	-49kg	
64	테니스	남일	홍성찬	개인전	국군 체육부대
65	펜싱	여고	조혜림 등 4명	플러레 단체전	부산선발
66	핸드볼	여일	고현서 등 16명	단체전	부산 시설공단

은메달 57개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농구	남일	양홍석 등 12명	단체전	국군체육부대
2	레슬링	남일	성준	G82kg	부산시청
3		남고	강민서	G60kg	부산체고3
4		남대	노병현	G72kg	경성대3
5		여일	김소연	F57kg	체육회
6		남대	임지홍	F57kg	동아대2
7		고등	최준성	혼성개인전	바둑협회2
8	바둑	일반	박한솔, 윤남기	혼성페어전	바둑협회
9	볼링	남일	구성희 등 3명	3인조경기	부산시청
10		남일	구성희 등 6명	5인조경기	
11		남일	지근	마스터즈	
12	사격	남일	이원호	50m권총	KB국민은행
13		남일	박하준	공기소총-개인	KT
14		남일	김상도	50m 소총복사	
15		여일	고은	25m권총	부산시청
16		일반	안대명	트랩-개인	
17		사이클	여고	허유정	1km 개인독주
18	남고		조호승 등 3명	단체스프린트	부산체고
19	남고		정재호	스프린트	부산체고3
20	산악	남일	노현승	스포츠 클라이밍 난이도	부산신정고2
21		여일	노희주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링	부산패밀리 산악회
22	세팍 타크로	남고	김규영 등 5명	단체전	부산체고
23		여고	이은미 등 5명	단체전	
24	수영 (경영)	남고	박우민	접영100m	부산체고2
25	씨름	남대	정성재	소장급80kg	동아대2
26		남대	신건	장사급140kg	동아대3
27		남일	김명기	용사급95kg	부산갈매기 씨름단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28	씨름	여일	이다현	무궁화급	부산협회
29	역도	여고	김하연	인상87kg	부산항공고3
30		남고	김마틴	용상96kg	부산체고2
31		남고	김마틴	합계96kg	
32		남고	안재경	인상109kg	부산체고3
33		남고	조성찬	용상+109kg	부산체고2
34		남고	조성찬	합계+109kg	
35	요트	일반	김지아, 조성민	혼성국제 470급	부산시청
36	유도	남대	이다운	-81kg	동의대4
37		남고	양현진	-66kg	해동고3
38		남고	박규민	-81kg	
39	육상 (트랙)	남일	최기만	400m허들	부산은행
40	육상 (필드)	여고	이주은	해머던지기	부산체고2
41		여고	박은지	원반던지기	부산체고1
42		남대	박용배	높이뛰기	부산대4
43	조정	남고	김상현 등 4명	쿼드러플스컬	부산체고
44		여고	유윤지, 조서연	더블스컬	
45	체조	남일	손종혁	제3경기 링	체육회
46	태권도	여대	권슬아	-73kg	동아대2
47		남일	김동영	-74kg	수영구청
48		남고	이태경	-68kg	금정고3
49	테니스	남대	황효원	개인전단식	부산대1
50	펜싱	남일	구본길	사브르 개인전	부산시청
51		남고	정민섭	에베 개인전	대동고3
52		여고	조혜림	플러레 개인전	부산체고2
53		여일	송세라 등 4명	에베 단체전	부산시청
54	핀수영	여일	서의진	표면-50M	체육회
55		남일	장형진	표면-200M	핀수영협회
56		여일	서의진 등 4명	표면-200M	체육회
57	핸드볼	남일	김지윤 등 16명	단체전	상무피닉스

동메달 117개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검도	남일	조관현 등 6명	단체전	체육회	
2	궁도	일반	장오현 등 7명	단체전	부산협회	
3	근대 5종	남일	손정욱	5종(개인)	한체대3	
4		남일	손정욱 등 2명	5종(단체)	부산선발	
5		여고	이가현 등 3명	계주(4종)	부산체고	
6	농구	여고	김나현 등 8명	단체전	동주여고	
7	당구	남일	이근재	잉글리쉬 빌리어드	체육회	
8	레슬링	남대	장은성	G82kg	경성대2	
9		남대	고이준	G130kg	경성대1	
10		남일	김화중	G77kg	부산시청	
11		남고	서지호	G51kg	부산체고1	
12		남대	하성윤	G87kg	경성대2	
13		남고	정태훈	G67kg	부산체고1	
14		남대	양민호	G60kg	경성대2	
15		남일	최인상	G67kg	부산협회	
16		남일	최정주	G97kg	레슬링 넘버원	
17		여일	정은수	F55kg	체육회	
18		남고	김민서	F70kg	건국고2	
19		남대	김정민	F74kg	동아대2	
20		남일	이건우	F74kg	부산협회	
21		남대	박지한	자유형86kg	동아대2	
22		남일	안재용	자유형57kg	부산시청	
23		남일	최인상	자유형65kg	부산협회	
24		남고	육준우	자유형74kg	부산체고2	
25		남대	신윤호	F125kg	동아대4	
26		롤러	남일	허봉	스프린트 500m+D	서구청
27			여일	전주애	스프린트 500m+D	체육회
28			여일	이해원 등 3명	계주 3,000m	
29		배구	남고	맹준우 등 12명	단체전	성지고
30			남일	박희철 등 8명	단체전	체육회
31			여고	탁해정 등 12명	단체전	남성여고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32	복싱	남고	김규빈	밴텀	부산체고2
33		남고	김준영	라이트웰터	부산체고3
34		남고	김동현	미들	성지복싱클럽1
35		남고	김동현	헤비	부산체고2
36		남대	강정민	라이트	한체대4
37		남대	박상인	라이트헤비	한체대1
38		남일	김주완	플라이	체육회
39		남일	김원호	라이트	
40		남일	이민우	라이트헤비	
41		여일	강수경	미들	
42		볼링	남일	최호석	개인전
43	사격	남일	김종현	50m 소총3자세	KT
44		일반	고근오 등 4명	스키트-단체	부산선발
45	사이클	여고	이민서	개인도로	부산체고1
46		남고	조호승	1km 개인독주	부산체고3
47		남일	안효민	1km 개인독주	부산시설공단
48		남일	강서준 등 3명	단체스프린트	
49	남일	강서준	경륜		
50	산악	남고	노현승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링	부산신정고2
51		남일	강민수	속도	부산패밀리산악회
52	소프트 테니스	여일	나지현, 안지해	개인복식	사하구청
53	수영 (경영)	여고	김나희	자유형 200m	부산체고2
54	스쿼시	여고	김지윤 등 4명	단체전	대광고
55	씨름	남대	김성국	용장급90kg	동아대3
56	양궁	여대	최혜미	70M	동서대2
57		여고	김정은	50M	부산체고2
58	에어로빅 합합	남일	임재한	힙합-남자개인	체육회
59		여일	김현지	힙합-여자개인	
60		고등	김지윤 등 3명	힙합-단체	부산선발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61	역도	여고	김하연	합계87kg	부산항공고3
62		남고	하재민	인상89kg	부산체고1
63		여일	김수현	인상76kg	체육회
64		여일	김수현	용상76kg	
65		여일	김수현	합계76kg	
66		남일	양지웅	합계73kg	
67		남일	조대회	합계89kg	
68	우슈	남고	이동환	태극권전능	부산강서고2
69		남일	서기원	태극권전능	태극무예원
70	요트	일반	조원우	국제윈드서핑	해운대구청
71	유도	남대	옥유빈	-100kg	동의대2
72		남일	명범석	-90kg	부산시청
73		남고	임유준	-55kg	해동고1
74		여고	조민경	-48kg	부산체고2
75	육상 (트랙)	남고	이정수	10종경기	사대부고3
76		남대	이현우 등 4명	4x100mR	부산선발
77		남일	박재영	3000m 장애	국군체육부대
78	여고	황혜림	3000m 장애	부산체고3	
79	육상 (필드)	남일	이두현	장대 높이뛰기	동아대3
80		남고	조성우	장대 높이뛰기	부산체고3
81	조정	남고	나건우	싱글스컬	부산체고1
82		여일	김하영, 조선형	무타페어	부산항만공사
83	체조	남일	양학선	제3경기 도마	체육회
84	카누	남일	이경훈 등 4명	K4-500M	강서구청, 체육회
85	탁구	남고	김준석	개인전	부산체고2
86		일반	이다은, 임종훈	혼합복식	부산선발
87		남고	김이환 등 7명	단체전	부산체고
88		여일	이다은 등 4명	단체전	한국마사회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89	태권도	남대	김성제	-63kg	고신대4
90		여일	이다경	-46kg	동래구청
91		여대	장혜지	-49kg	동아대1
92		여대	백선주	-67kg	동의대2
93		여일	박서진	-67kg	동래구청
94		여고	이언지	+73kg	부산체고3
95		여대	김설	-62kg	동아대4
96		남대	현지민	-80kg	동아대3
97		남대	정지우	+87kg	동아대4
98		남고	유준욱	-74kg	부흥고1
99	남고	배성빈	공인품새	부산정보고3	
100	여고	박지수	공인품새	부산진여상2	
101	택견	남일	서정민	-73kg	택견회
102		남일	김성현	+87kg	
103		여일	성의주	-57kg	
104	테니스	남일	권순우 등 3명	단체전	국군체육부대
105		여고	김연우 등 4명	단체전	남산고
106	펜싱	남일	유채운	플러레 개인전	부산외대4
107		남일	마세건	에베 개인전	부산시청
108		여일	송세라	에베 개인전	
109		남고	박서윤 등 4명	플러레 단체전	부산체고
110	핀수영	여일	전효정	표면-100M	체육회
111		남일	김동현	표면-200M	서브원
112		여일	서의진	무호흡잠영 50M	체육회
113		여일	이은서	표면-200M	
114	하키	남일	권혁 등 18명	단체전	부산외대
115		여일	김유진 등 18명	단체전	kt sports
116	합기도	남고	서승현	2종목	합기도 검용관 일심도장3
117		여고	유아린	미들급	합기도 검용관 일심도장2

가로 19칸 그리고 세로 19칸
361칸에 담긴 우주의 이치

바둑

자료 출처: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흑과 백이 겨루어 많은 집을 지은 쪽이 이긴다.” 동양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바둑의 룰은 간단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 간단한 규칙 속에는 우주의 이치와 철학이 담겨 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승리만을 목표로 싸우지 않는다. 그저 수담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갈 뿐이다.

바둑의 역사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대부분 고대 전설에 의존하고 있고 그 사실(史實)이 기록된 문헌이 드물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대 중국의 요(堯)·순(舜) 임금이 어리석은 아들 단주(丹朱)와 상군(商均)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다. 중국의 고전 《박물지(博物誌)》에 실린 ‘요조위기 단주선지(堯造圍棋 丹朱善之)’라는 문구에 따르면 요왕이 아들을 위해 바둑을 발명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삼국유사》에서 고구려의 승려 도림이 백제의 개로왕과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백제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될 때 바둑도 함께 건너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기자조선 시대부터 바둑이 두어졌다는 설도 있지만 근거는 불명확하다.

근대바둑의 성립과 발전

바둑은 고대 중국에서 발명된 이래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어 일부 상류층 사이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경기의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은 중세 일본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막부(幕府)시대에 바둑은 국기(國技)로 적극 지원을 받으면서 바야흐로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바둑을 업(業)으로 삼는 기사(棋士)제도와 본인방(本因坊) 등의 바둑가문이 생기고, 이들에 의해 룰이 정비되며 각종 이론과 정석이 정립되는 등 비로소 근대경기로서의 체계가 세워진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가문세습제도 대신 협회와 프로제도가 탄생하고 신문사들이 기전의 후원사로 나서면서 오늘날 현대바둑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현재의 바둑과는 달리 돌들을 미리 배치하고 두는 고유의 순장(巡將) 바둑이 20세기 초반까지 성행하다가 해방 후 일본에 바둑유학을 다녀온 조남철 9단에 의해 현대바둑이 도입됐다.



대국 방법

- 바둑은 두 사람이 하는 경기다. 단, 경우에 따라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팀을 이루어 하는 연기도 가능하다.
- 두 사람이 흑·백의 돌을 나누어 갖고 쌍방 한번씩 교대로 두어나간다. 첫 점은 흑이 먼저 둔다. (접바둑에서는 백이 먼저 둔다.)
- 바둑의 승패는 종료 후 흑·백의 집을 비교해 가린다. 즉, 많은 집을 확보한 쪽이 승리한다.
- 쌍방의 집수를 비교하기 위해 서로의 집을 세기 쉽게 직사각형으로 구획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계가(計家)라고 한다. 이때 대국 중 잡은 상대의 사석들은 상대의 집을 매우는데 쓴다. (단, 중국과 대만 등에서 쓰이는 룰에서는 집을 세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경기용 도구

바둑판

가로·세로 각 19줄을 그린 평면으로 가로 42cm, 세로 45cm의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경기용 바둑판의 두께는 2.5~7.5cm로 한다.

바둑돌/바둑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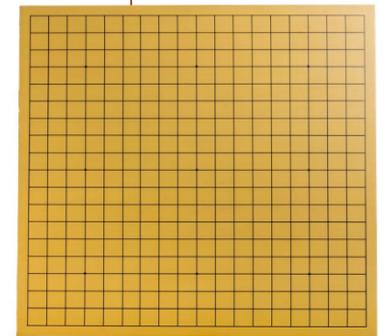
흑과 백으로 구분하고 흑은 181개, 백은 180개가 표준이다. 바둑통의 뚜껑은 잡은 돌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

계시기(초시계)

계시기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으로 사용한다. 계시원이 담당하는 경기일 때, 주최 측과 계시기 종류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경기용 탁자와 의자

탁자와 의자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을 사용한다.





대국
예절

바둑은 인사부터 대화,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예도를 중시한다.

- 자리를 잡을 때는 연장자나 상수가 상석에 앉도록 하고 상호 단정한 자세를 갖춘다.
- 바둑돌은 하나씩 집어 놓되 올바른 손자세를 갖춘다. 즉, 집게손가락 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가볍게 포갠 다음 그 사이에 돌을 끼워잡는다.
- 바둑돌은 오른손으로 쥐고, 달그락거리는 등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행동을 삼간다.
- 첫 수는 바둑판의 오른쪽에 둔다. 맞바둑은 우상귀, 접바둑은 우하귀에 첫 수를 두는 것이 관례이다.
- 대국 도중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떠들지 않으며 관전자는 참견하거나 훈수를 하지 않는다.
- 대국의 시작과 종료의 때에는 상호 인사말을 건넨다.
- 계가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반상의 돌을 가지런히 모아 바둑통에 되담는다.

반칙

심판은 선수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 착수 금지점에 둔 경우
-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 경기 종료 전 계시기를 끈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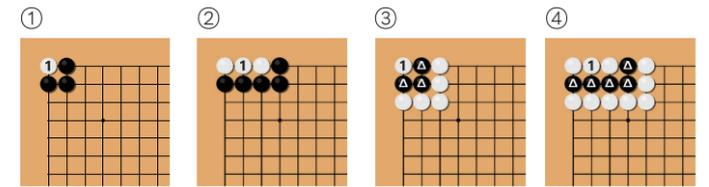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관전 재미가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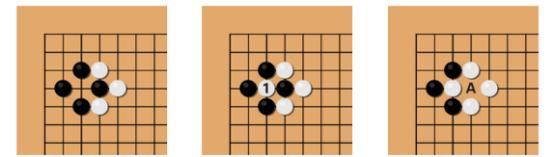
바둑돌을 놓을 수 없는 곳?

참고도 ①과 ②처럼 착수 시 활로가 없는 곳은 돌을 놓을 수 없다. 단, 참고도 ③과 ④처럼 상대방의 돌을 따낼 수 있는 경우에는 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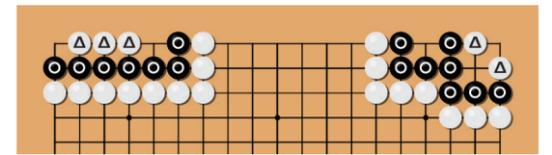
패?

흑과 백이 상대방의 돌 한 개를 번갈아가며 따낼 수 있는 형태를 '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한 번 이상 놓은 다음(팻감 쓰기) 패를 따낼 수 있다.



빅?

흑과 백이 한 곳 이상의 공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서로 따낼 수 없는 형태를 '빅'이라 한다. 이는 집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일상 속 바둑용어

미생(未生)

삶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미생마(未生馬)

삶이 온전하지 않은 말.

사활(死活)

돌 모양의 삶과 죽음. (e)x 사활을 걸다.

고수(高手)

바둑 수가 높음. 또는 그러한 사람.

하수(下手)

기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사람.

곤마(困馬)

두 눈을 갖지 못해 살기 어렵게 된 말. 상대방에게 심하게 공격 당하거나 둘러싸여 온전한 삶을 구하기 힘든 처지에 놓인 말. (e)x 곤마에 빠지다.

악수(惡手)

잘못 놓은 부적당한 나쁜 수. 두어진 결과가 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 (e)x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자충(自充)

자기 돌의 공배를 스스로 메워 자기 돌의 수를 줄이는 일. (e)x 그때 그 행동이 자충수였다.

전 세계 러너들의 바이블, 800m부터 마라톤까지 훈련 처방전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

"좋은 러너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다."



저자 잭 다니엘스 출판사 인간회극

일관성이란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과거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먼 앞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일관된 트레이닝을 하면 그 앞에 큰 성공이 보인다.

도심의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러너들의 호흡이 귓가에 남는다. SNS 피드에는 러닝 크루의 인증샷이 넘쳐나고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가 축제처럼 열린다. 달리는 지금, 다시 '쿨한 문화'가 되었다. 기록 대신 감각을 나누고 완주보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시대.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루를 정돈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일상의 의식이 되었다.

하지만 열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몸은 진심을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에는 언제나 질서가 필요하다.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는 그 질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해석한 러닝의 바이블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세계적인 운동생리학자 잭 다니엘스는 러너의 능력을 수식으로 분석하여 'VDOT'라는 독창적인 지표를 만들었다. 이 개념을 통해 달리기 강도와 페이스를 계산하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갈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짜 힘은 과학보다 철학에 있다.

그는 말한다. "페이스 차트는 당신의 몸을 대신해 말하지 않는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며, 달리는 욕망이 아니라 조율의 예술이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훈련 영역 이지런(Easy), 마라톤 페이스(Marathon), 임계치 페이스(Threshold), 인터벌 페이스(Interval), 반복주 페이스(Repetition)는 단순한 트레이닝 강도 구간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 대한 은유다. 쉬어야 할 때는 확실히 쉬고, 내달릴 때는 한계까지 달리는 것. 그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야말로, 러너가 오래 달릴 수 있는 이유이자 우리가 몸과 마음의 조화를 배우는 길이다.



러닝은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을 단련하는 일이다. 러너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체력보다 일관된 집중이다.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말고, 다가올 레이스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그 일관성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 다니엘스는 말한다. "훈련이란 몸을 움직이는 행위만이 아니다. 식생활, 휴식, 삶의 모든 균형이 곧 러닝의 연장이다." 러닝은 달리기를 넘어 존재의 리듬을 세밀히 조율하는 철학이다.

그래서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는 단순한 훈련 지침서를 넘어선다. 러너에게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몸으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달리고 있는가?"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완벽함보다 값진 것은 꾸준함이다. 유행처럼 번진 러닝의 세계 속에서도 진짜 러너는 여전히 자기와의 대화를 잊지 않는다.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는 달리의 유행을 넘어, 러닝을 하나의 철학으로 되살려주는 책이다. 다니엘스의 공식은 그 리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단단한 나침반이며 우리 삶의 축이 되어준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17개 시도 중 종합 2위, 부산선수단의 선전 축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10일(월) 호텔농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석준 교육감,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진규상 국군체육부대장,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함께 축하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산선수단은 선수 및 임원 2,000명이 참가해 금메달 66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117개를 획득하며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해단식에서는 부산선수단 총감독의 대회 경과보고에 이어 종합 우승·종합 2위·종합 3위를 달성한 18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

상, 전년 대비 종합점수 500점 이상 향상된 15개 단체에 성취상 수여가 있었다. 단체 MVP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 개인 MVP는 배드민턴 정유빈 선수(부산외국어대학교 3학년)가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훈련에 매진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종목단체 지원 등 모두의 헌신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이 ‘스포츠가 살아 있는 부산, 함께 뛰고 싶은 도시’임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오늘의 성취를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협업을 확대해 부산체육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 부산체육진흥 세미나 개최 부산체육의 발전 방향 모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최고 성적 달성을 바탕으로, 향후 부산체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부산체육진흥 세미나’를 11월 6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체육회 및 회원단체(구군체육회, 종목단체) 임직원, 실업팀 선수단, 체육회 수탁 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클린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법정 필수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산체육! 글로벌 체육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 주제 발표는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해양스포츠, 생활체육, 스포츠 관광 등 각 부문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부산광역시조정협회 김준모 사무국장, 부산진구스포츠클럽 김동준 사무국장,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종합 2위라는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하여 부산 체육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제22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 개최

10월 26일(일), '제22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가 봉래초등학교 외 9개소에서 개최되었다. 총 10개 종목(검도,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족구, 축구, 파크골프, 테니스, 어울림바둑)에 84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발휘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파크골프 대회는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서구체육회



부산 서구청 실업팀 인라인롤러 선수단 격려 방문

10월 20일(월), 서구체육회 이사진 및 대의원들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 서구청 실업팀 인라인롤러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강서구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방문했다. 부산 서구청 인라인롤러팀은 전국체육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서구 체육의 저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방문은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동구체육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봉송 주자 참여

10월 14일(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화가 부산역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13일 부산시청에서 출발한 성화는 14일에 부산역에서 부산진구로부터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에게 토치키스되었다.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은 동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체육인의 자긍심을 느꼈다.

영도구체육회



제17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10월 18일(토), 마린축구장에서 중등부 5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영도구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은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당부하였으며, 대회 결과 부산남중학교가 우승, 영도제일중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전포1배수지파크골프장,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개강

10월 21일(화),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9월 문을 연 전포1배수지파크골프장에서 2025년도 하반기 2차 생활체육교실 개강식을 진행하였다. 전포1배수지파크골프장은 부산진구 최초의 파크골프장으로, 구민들은 보다 가까운 생활권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모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동래구체육회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슬기로운 음성민 체육생활' 시범공연

동래구체육회는 10월 24일(금)부터 10월 26일(일)까지 3일간 열린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슬기로운 음성민 체육생활' 시범공연을 하였다. 시범공연은 생활체육의 즐거움과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동래구체조협회가 참여해 점핑머신, 밸리댄스, 폴댄스, 스트리트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구체육회



2025 부산광역시남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 테니스대회

10월 26일(일), 백운포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2025 부산광역시남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 서성부 남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보여주었고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북구체육회



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10월 19일(일)과 10월 26일(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1위는 백산클럽, 2위는 신명클럽, 3위는 참좋은화신클럽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43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10월 26일(일), 장산구장 및 해운대수목원 축구장에서 '제43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김미애 해운대구(을) 국회의원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가한 400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장산구장에서는 해동FC, 해운대수목원 축구장에서는 반여축구회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사하구체육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사하구 서포터즈 발대식 진행

10월 1일(수), 사하구체육회는 사하구청과 함께 사하구청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한 '사하구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회원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정구체육회



제22차 이사회 개최

10월 13일(월), 금정구체육회는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3분기 주요 업무 경과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봉송 및 서포터즈 활동을 보고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등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체육회 운영 내실을 다졌다. 또한 '2025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단합대회', '부산시민대축전' 등 하반기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서구체육회



제6회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 개최

'제6회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가 10월 31일(금) 용원CC에서 37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신페리오)과 단체전으로 진행하였으며 1부에 18팀 72명, 2부에 60팀이 출전하였다. 대회 시상은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연제구민 체육대회 개최

10월 19일(일), 부산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12개 동 연제구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제구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 굴리기, 박터뜨리기, 원통 릴레이 등 팀 대항 종목과 800계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동대항 경기를 통해 구민들의 화합을 다졌다. 경기 결과 연산1동이 종합우승, 연산6동이 준우승, 거제3동이 장려상을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5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 행사 진행

10월 25일(토), '2025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롯데월드를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여가 활동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생활체육 실천을 유도하고, 가족 간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상구체육회



2025년 사상구청장배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10월 30일(목), '2025년 사상구청장배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삼락생태공원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그라운드골프협회가 결성된 12개 구·군에서 선발된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참가 선수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화합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기장군체육회



제10회 기장군수배 초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10월 24일(금), 기장군 철마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10회 기장군수배 초청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시 구·군 동호인 총 15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특히, 1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그라운드골프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의미도 더해져 참가자들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가을 운동회 및 참여 수업 진행

10월 26일(일), 꿈나무체능단 12명과 단원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 운동회 및 참여 수업'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운동회를 통해 스포츠정신을 함양하고 가족 구성원 간 화합과 결속력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그간 단원들이 배운 수영 실력을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운동회는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의 특색을 잘 살린 농구 릴레이, 태권도 등을 활용한 게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단원 가족들도 단체줄넘기, 레크레이션 게임에 함께 참여해 어우러짐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운동회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학부모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5년 강서구 배드민턴협회 청년부 대회 개최

10월 25일(토)과 26일(일), '2025년 강서구 배드민턴협회 청년부 대회'가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150여 명의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또한 대회를 통해 지역 배드민턴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테니스장 실내·실외 및 부대시설 청소 실시

10월 1일(수), 테니스장 실내·실외 및 부대시설 전체 청소를 실시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화장실, 샤워실, 테니스장 등을 청소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정(情) 나눔 이벤트 진행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용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부산실내빙상장 관계자들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초코파이와 야쿠르트를 증정하며 '드리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을 이용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행사는 서로에게 추석 인사를 건네며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실내빙상장



2025년 체육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지난 10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 체육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원들은 시설 청결, 기구 상태, 프로그램 다양성 등의 항목에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청결 관리와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회원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낚시협회

1

2025년 제4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바다낚시대회 개최

10월 26일(일), 영도 조도방파제에서 ‘2025년 제4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선수 92명, 감독관 및 안전요원 20여 명, 내빈 등 총인원 135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낚시를 사랑하는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어종 1등 붉바리(1,314g)를 낚은 권동혁 씨(부산), 준우승은 삼치를 낚은 유영균 씨(울산),

3등은 방어를 낚은 지영훈 씨(부산)가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 김선관 회장은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낚시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낚시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자연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바다낚시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 이후에도 낚시 동호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낚시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U12 축구팀, 대한축구협회 ‘1종(전문)’ 라이선스 승인

9월 12일(금),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이 대한축구협회(KFA)가 주관하는 ‘2026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라이선스 1종(전문)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 제도로, 이를 통해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U12 축구팀은 전국 리그 정식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 축구리그 라이선스 제도는 대한축구협회가 전국 초·중·고 축구팀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팀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DITSC 유소년 축구팀은 더욱 전문적인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유소년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전문 선수 육성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부산은 25년 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 52년 만에 놀라운 순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종합 순위 몇 위에 올랐을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많은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이번 전국체육대회 중에서 처음으로 종합 1위를 달성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복싱 ② 세팍타크로 ③ 에어로빅힙합

3 부산환경공단이 운영·지원하는 이 종목은 최근 8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여 직장운동경기부 공동우승을 달성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하키 ② 댄스스포츠 ③ 세팍타크로

『부산체육』 제83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 1. ① 사격 2. ③ 당구
3. ① 광안리해수욕장

당첨자

- 손*원(8781) 신*섭(7371) 유*경(4099) 노*희(1328) 박*미(3435)
김*미(0580) 임*혁(5689) 김*미(0876) 최*훈(8723) 박*희(9236)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부산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무려 52년 만에 종합 ○○에 올랐다.
힌트 <제전 그 이후> 12쪽

2 ○○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
힌트 <제전 그 이후> 13쪽

3 부산환경공단은 오랜 기간 ○○○○팀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힌트 <부산체육 > 20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응모 기간 2025.11.17.(월)~11.30.(일)
-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5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왕자



어린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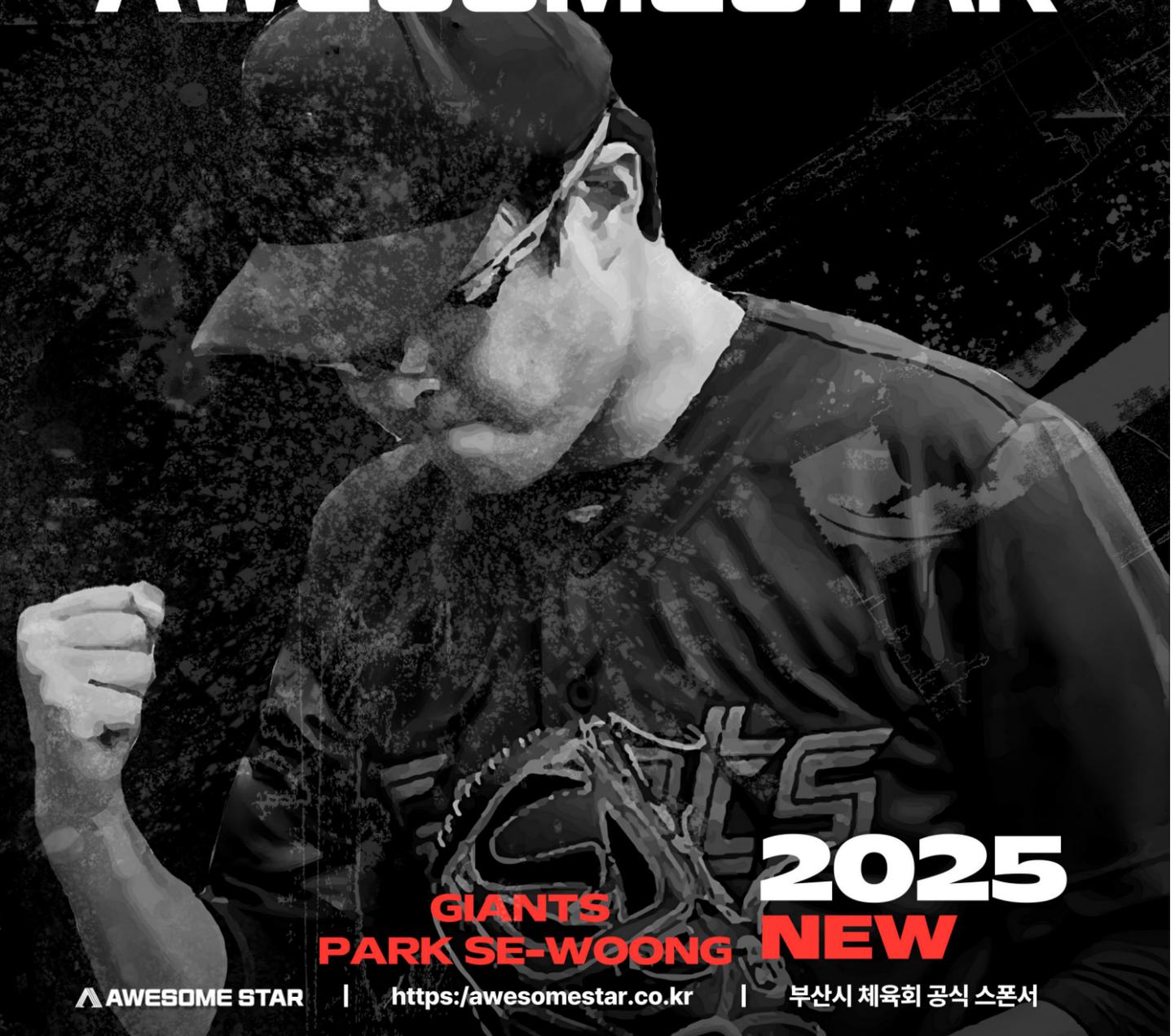
문의전화 051) 247-9900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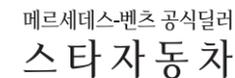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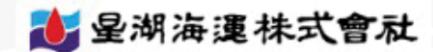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BANK 사장님 월급통장

처음이라는
묘한 떨림

첫 가게, 첫 고객,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첫 통장
사장님의 시작이 놓인 곳에
부산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품 바로가기]

- [상품유형]** 기업MMDA
- [가입대상]** 만 17세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1계좌 가입 가능)
- [입금제한]** 최대 1천만원까지 (현원단위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1천만원 넘는 거래가 발생 시 해당거래 전체 입금불가
 - 근거계좌로부터 자동저축을 통한 입금만 가능, 그 외의 입금은 모두 제한 (단, 이 통장의 이자입금 제외)
- [이자지급시기]** 다음 기준일에 계산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대하여 지급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결산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당일
 -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결산일)부터 결산일 전일까지
- [판매채널]** 모바일뱅킹
- [금리안내]**
 - 기본이율 : 1.60%
 - 우대이율 : 카드가맹점 입금실적 연 0.20%p(2025.6.24기준)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 전월기준 근거계좌로 4개 이상 카드사 가맹점결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입금(자동저축)]**
 - 자동저축의 기준금액은 전일 근거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준금액에서 설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확정 금액이 다음날 자동저축방식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
 - 자동저축을 신청(반영)한 다음날부터 자동저축이 시작(반영)되며 매일(공휴일, 주말포함)적용
 - 자동저축금액이 실행되는 시점에 근거계좌의 잔액이 자동저축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체 불가
 - 자동저축이 매일 실행되는 시점(오전 8시부터 순차적 실행)의 설정/중단 여부에 따라 해당일의 자동저축 여부 결정
 - 자동저축되는 금액은 1천원~1백만원으로 천원단위로 가능
 - 두가지의 모으기 방법 중 하나의 모으기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가능
 - ① 비율로 모으기 : 기준금액 X 비율(5%, 10%, 15%)
 - ② 금액으로 모으기 : 고객이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저축 실행
- [예금가입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553 (심의일자 : 2025. 07. 16) | 유효기간 : 2025. 07. 16 ~ 2025. 12. 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